

◆ 북미

- 미국 보험산업 연방감독법안에 대한 논쟁
- 2007년 미국 보험산업 10대 이슈

◆ 유럽

- PruHealth사, 건강관리 보상프로그램으로 보험료 75%까지 인하
- Munich Re, 2007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규모 발표
- AEGON, Merrill Lynch의 2개 생명보험자회사 인수

◆ 일본

- 금융청, 우체국보험감독 참사관제도 도입

◆ 중국

- 중국, 보험회사 정보시스템 안전등급제 전면 시행
- 중국, 5년 내 중산층 생명보험 가입률 전체시장의 35% 차지
- 중국 보험설계사의 사회적 지위 여전히 낮아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미국보험산업 연방감독법안에 대한 논쟁

- 미국손해보험계리사회(CAS) 연차회의에서 보험산업 연방감독안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임.
 - 의회는 최근 선택적 연방 조항(Optional Federal Charter(OFC))을 신설하는 내용의 2007 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of 2007)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
 - 이 법안은 모든 생명, 손해보험사들에게 연방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며, 연방법 적용을 선택한 보험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주(state)단위의 규제에 되돌릴 수 있음.
 - 연방법 적용을 선택한 보험사는 맥캐런 퍼거슨 법(McCarran-Ferguson Act)하에서 주별 규제를 통해 보장되는 제한적인 반독점법 예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 전 미국손해보험계리사회 회장인 David Hartman은 토론을 중재하면서 연방감독안이 가지는 주요 변화에 대해 설명함.
 - 하트만은 연방규제 하에서 손해보험사들은 효율규정(맥캐런 퍼거슨 법에 의해 불공정거래의 예외로 인정받는 공동효율 산출 등)을 따르지 않게 되며 이는 현재의 손해보험산업에 제한적 반독점 예외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함.
 - 그는 OFC조항이 보험사의 M&A를 비롯하여 재무규제, 시장행위, 불공정거래 소송절차, 청산과 파산 등을 포함하는 보험사업 상의 많은 부분을 포함할 것이라고 이야기함.
 - 또한 전국적 보험사(national insurer,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도 역시 주 보험료 조세(premium tax)를 납부해야 하고 주 보증기금에 참여해야 하며, 주 의무보상법(compulsory coverage laws)을 따라야 하고 주

잔여보험시장(Residual Market ; 불량물건인수시장) 메커니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함.

- OFC조항에 반대하는 일리노이 보험국의 Michael McRaith는 현재의 주별 보험감독 체계를 보완하려는 논의는 중요하지만 이런 형태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함.
 - 그는 소비자들에게 불만이 생겼을 경우 연방기구에 연락하기를 원치 않는 다며 OFC조항은 1930년대 뉴딜정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연방규제 확대 방안이라고 주장함.
 - 또한 각 주 보험국들은 지금까지 보험산업을 잘 감독해 왔으며 이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역설함.
 - 미국손해보험협회 관계자인 Deirdre Manna는 주 감독 당국자들은 보험사의 지급여력문제들을 잘 다루어 왔으며 OFC조항을 고려하기에 앞서 현재의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함.
 - 미국상호보험협회(NAMIC) 관계자인 Neil Alldredge는 현재의 주별 규제에 대한 비판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연방규제가 가지는 잠재적 문제점이 단기적 이익보다 클 것이라고 주장함.
- 미국보험은행연합회(American Bankers Insurance Association)¹⁾의 이사인 Kevin Mcechnie는 보험산업이 51개 주에서 모두 다르게 규제되고 있는 현 체계는 문제가 있으며 선택적 연방 조항(OFC)은 규제 시스템을 보다 일관성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그는 새로운 연방규제당국은 연방규제를 원하는 보험사에 의해 재정이 유지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제외되었던 논의들을 다른 국가와의 조약에 삽입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함.
 - 또한 주 단위 수준에서 다루어지기 어려운 테러보험, 국가 재난 계획 등은 연방 시스템 하에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주별 규제 시스템은 금융서비스 산업 또는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하지 못해왔다고 주장함.

(Insurance Journal, 12/31)

1) 미국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의 보험지부

□ 2007년 미국보험산업 10대 이슈

○ 미국 보험전문 잡지인 Insurance Journal은 지난 2007년을 회고하며 10대 기사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며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기후변화 :

- 지난 2월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는 온실가스의 증가와 그로 인한 기온의 상승 그리고 인류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보험사 중 Munich Re, Swiss Re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측정하는데 전념하는 전담부서를 운영 중이며 Lloyd의 360 Project도 최근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 최근 한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의 위험에 노출된 재물은 2070년 35조 달러로 전세계 GDP의 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2) 허리케인 미발생 :

- 2007년 미국에는 Dean, Felix, Noel 등의 폭풍(storm)들이 발생하긴 했으나 강력한 허리케인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보험료 인하 요구가 증가하였으나, 중기적으로 허리케인의 위험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3) 연성시장(soft market) 형성 :

- 2007년 보험산업은 모든 보험 부문에서 보험료가 하락하는 연성시장을 형성하였음.
- 보험사들은 보험료 하락에 직면하였으나,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상당한 보험영업이익을 기록함.

(4)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

- 지난 5년간의 주택경기 호황과 금융상품의 혁신 등은 주택 모기지가 구조화 되는 방법에 변화를 가져왔고, 주택담보대출은 부채담보부증권(CDOs), 구조화 투자 회사(SIV, 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²⁾등에 패키지화되었음.
- 그러나 주택구입자가 파산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하였고 SwissRe는 1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함.

2) SIV는 단기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여 장기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장단기증권 간 이자율 차이를 통해 수익을 얻음.

- 보험사들은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해 단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관련된 금융회사의 투자자들로 인한 임원책임 배상 소송에서 손실을 볼 수 있음. 또한 서브프라임 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것도 우려할 만한 사항임.

(5) 테러보험법안 연장 :

- 기존 테러보험법의 만료가 며칠 안남은 상황에서 부시 미국대통령은 테러보험법 연장안을 승인함.
- 테러보험재승인법(TRIPRA)으로 불리는 이 법은 7년간의 테러보험법 연장과 함께, 외국과 내국 테러활동에 대한 구분을 삭제함.

(6) 중국산 제품의 위험성 문제 :

- 2007년, 중국 상품들은 오염된 치약, 수은이 검출된 인형, 독성 개 사료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상실함.
- 보험사들은 중국산 상품의 수입업자나 판매자들에 대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음.

(7) 설계사 보상 문제 :

- 몇몇 주요 보험사가 연초에 지급하는 성과급(contingent commission)을 금지하면서 독립 설계사(agency)들에 대한 보상 체계는 변화하게 되었고, 보험사들은 성과가 좋은 설계사들에 대한 새로운 보상방법을 찾아야만 함.

(8) 화재와 홍수 :

- 12월 현재 카트리나, 쓰나미, 지진 등과 같은 대재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캘리포니아 산불 정도의 재해가 있었음.
- 또한 2007년 미국에서는 재해와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음.

(9) 규제상의 변화 :

- 유럽연합은 2012년 solvency II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어떻게 미국에 적용시킬 것인가는 과제로 남아 있음.
- 또한 보험사가 주(state)단위의 규제 대신 연방단위의 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음.

(10) 보험중개사 MMC의 위기 :

- 세계적인 보험중개사인 MMC(Marsh & McLemman)의 보험중개 부문인 Marsh는 상당히 안좋은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Marsh의 CEO였던 Brian Storms는 지난 9월 해고당했음.

(Insurance Journal, 12/31)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PruHealth사, 건강관리 보상프로그램으로 보험료 75%까지 인하

- 민영의료보험회사인 PruHealth사는 헬쓰클럽을 이용하거나 혹은 체중을 감소시키고 독감예방접종을 맞는 등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소비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일종의 보상 프로그램인 Vitality programme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이를 통해 건강보험 계약자들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험료의 75%까지 할인받을 수 있음.
 - Vitality programme에 참여하게 되면 헬쓰클럽, 금연테라피, 스파리조트, 건강검진센터 등 Vitality partners와 연계하여 건강관리가 모니터링되며 Vitality partner의 회원 할인혜택까지 받게 되므로 보험료 할인과 더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
 - 식이요법과 운동을 모니터링 하도록 허용하는 소비자가 할인의 대상이 되는 반면,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소비자는 페널티가 부과되어 서로 보험료 인상 및 인하 효과를 상쇄하게 됨.
- 이와 같은 PruHealth사의 건강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보상체계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14만 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데, 산업전문가는 비만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들도 동 보상체계를 상품에 적합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ABI의 대변인 또한 “위험을 측정하는 보험회사들은 심장질환이나 기타 질병발생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에 반영시키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힘.

(Daily Mail, 1/1)

□ Munich Re, 2007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규모 발표

- Munich Re는 2007년 자연재해와 관련한 전세계 보험손실액은 약 3백억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스위스리가 앞서 예측 발표한 250억 달러를 초과하는 수치임.
 - 홍수와 폭풍 등의 거대재해로 1만 5천명이 사망하였으며 동 재해로 인한 보험손실액을 포함한 총 재산피해는 약 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이는 지난 해의 피해액인 500억 달러보다 50% 증가하였으나 2005년의 2,200억 달러보다는 낮은 수치임.
 - 2005년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한 해로 보험손실액은 99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은 미국내 거대 허리케인으로 인한 대형재해가 없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음.
- 2007년 자연재해 건수는 금년 950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해의 850건 보다 100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Munich Re가 1974년부터 집계한 이래 가장 발생빈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2007년은 통계상 가장 따듯했던 한 해로 기록되었으며, 보험손실액이 가장 높았던 재해는 지난 1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북부를 휩쓸고 지나간 겨울폭풍 Kyrill로 49명이 사망하였으며, 교통피해 등에 따른 총 보험손실은 약 58억 달러, 총 경제적 손실은 1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6월과 7월 영국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는 보험손실액 약 6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0월에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보험손실액이 약 19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일으킨 재해는 지난 11월에 발생한 사이클론 Sidr로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3,3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됨.
- 동 사는 이러한 지표들은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이는 높은 보험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기후변화 효과에 따른 비정상적인 날씨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함 .

(CNN, 12/27)

□ AEGON, Merrill Lynch의 2개 생명보험자회사 인수

- AEGON과 Merrill Lynch는 보험과 투자상품 분야에 있어 전략적 사업제휴를 형성하는데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31일 발표하였음.
 -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AEGON은 Merrill Lynch Life Insurance Company와 ML Life Insurance Company of New York를 12.5억 달러에 인수 완료하였음.

- 동 제휴하에 AEGON의 Transamerica사는 미국에서 보험과 투자상품의 제공을 지속할 것이며, Merrill Lynch 자회사 인수를 통해 주요상품인 Merrill Lynch Investor Choice Annuity의 상품까지 판매하게 될 것임.
 - Merrill Lynch는 고유의 핵심 채널과 자문능력을 겸비한 금융자문네트워크를 통해 그들 고객의 보험수요에 대한 응대를 지속할 것임.

- 양 사는 기존상품을 강화하고 상품제공의 폭을 넓히는 내용을 포함하는 파트너쉽이 소비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07년 9월 현재 7억 6천 8백만달러의 변액연금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2개 생명보험회사의 인수로 AEGON은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그 비중이 상당히 증가할 것임.

- AEGON사의 미국지역 CEO인 Pat Baird는 이번 인수를 통해 Merrill Lynch와 강력한 전략적 제휴 프레임웍이 구축될 것이며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에 대한 공동 구축, 공동 브랜딩을 통해 Merrill Lynch Investor Choice Variable Annuity 상품 판매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Insurance Newsnet, 12/31)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금융청, 우체국보험감독 참사관제도 도입

- 일본의 금융청은 우체국은행과 우체국보험의 검사·감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감독 참사관’을 신설하고 금융시스템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 및 제거할 수 있도록 ‘리스크 대응 참사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2008년도 금융감독방향을 마련하였음.
- 금융청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검사, 감시 체제 및 우체국은행과 우체국보험의 검사·감독 체제를 강화할 계획임.
- 특히,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한 우체국그룹의 자회사인 우체국보험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감독 참사관’제도를 도입하였음.
- 또한, 시장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제거할 수 있도록 ‘리스크 대응 참사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감독체제를 강화할 계획임.

- 대폭적인 인재를 투입하는 증권감시위원회 등의 부문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과징금 조사의 강화를 포함한 시장감시 체제를 강화할 예정임.
- 금융·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부문은 금융·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플랜 체제의 재정비를 추진함.

- 금융청은 ‘민영화된 우체국그룹의 감독체제의 강화는 중요한 내년도 과제’라고 밝히고 있으며, 2008년 예산은 총 194.2억엔으로 전년대비 11.9% 감소하였지만, 인건비는 134.8억엔으로 전년대비 2.1% 증액할 예정임.

(보험매일신문, 12/27)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보험회사 정보시스템 안전등급제 전면 시행

- 2008년 1월 3일, 중국 보감위는 <보험업종(제 2그룹) 정보시스템 안전등급보호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정보시스템 안전등급제 시행에 있어 제 1그룹에 속하는 기관 및 회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 자산관리회사는 자사의 안전등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 보감위가 말하는 제 1그룹은, 보감위 및 각 지방보감국, 보험업협회(保險行業協會), 중국인민보험그룹(中國人民保險集團公司), 중국생명보험그룹(中國人壽保險集團公司), 중국재보험그룹(中國再保險集團有限公司), 중국수출신용보험(中國出口信用保險公司), 민성생명보험(民生人壽保險有限公司), 양광보험지주회사(陽光保險控股有限公司), 핑안보험그룹(平安保險集團有限公司), 타이핑양보험그룹(太平洋保險集團有限公司) 및 이들의 자회사와 분공사를 포함하고 있음.
- 등급 지정의 근거와 방법은 <정보안전등급보호관리방법>과 <정보안전기술 정보시스템 안전등급보호 등급지정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짐.
 - 규정에 따르면, 각급 기구와 회사는 ‘스스로 등급을 정하고 시스템을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내부적으로 관리 및 시행기구를 설치하여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정보시스템 보호업무를 전개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등급지정 범위는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의 경영, 관리, 업무 등 주요 정보시스템과 국가비밀정보 시스템을 포함함.
 - 금번 정보시스템 안전관리 업무는, 1)1월 20일 이전에 자체등급지정 완료, 2)1월 30일 이전에 공안기관과 비밀관리부서에 자진신고, 3)보험감독기관에 신고 등 단계적으로 진행됨.

(중국증권망, 1/4)

□ 중국, 5년 내 중산층 생명보험 가입률 전체시장의 35% 차지

- 프랑스 악사보험그룹은 최근 자체 보고서를 인용, 중국 재테크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약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또한, 오는 2012년이 되면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전열에 위치함으로써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규모가 전체 생명보험 시장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수많은 중산층이 생겨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신생 중산층은 연봉 20만 위안 이상, 충분한 교육을 받고, 강력한 소비력을 갖춘 것으로 정의됨.
 - 하지만 이들은 '돈은 있으나 이를 사용할 여유가 없는' 그룹으로 분류되어 재산구조가 은행적금, 부동산, 주식 등으로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약 31.3%만이 포트폴리오에 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 말 현재 중국의 중산층 소비자는 약 290만 명으로 추산됐으며 이 숫자는 오는 2015년이 되면 약 85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며 중산층의 증가는 생명보험 회사들에게 거대한 시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보고서 작업을 담당한 악사보험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중산층 이상 고소득 고객의 재테크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이를 만족시켜 줄 보험상품이 속속 개발되고 결국 보험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켜 줌으로써 생명보험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음.

(증권시보, 1/3)

□ 중국 보험설계사의 사회적 지위 여전히 낮아

-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90만 보험대리인(보험설계사)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복리제도에 대해 검토할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첫째, 기본생활보장이 결여돼 있는데 보험대리인은 모집계약에 대한 '급여'가 아닌 '수당'을 받아 보험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닌 '대리인' 자격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므로 실적이 없으면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질병, 실업, 노령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게다가 수당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럽, 대만, 홍콩 등에서는 초년도 수당이 보험료의 80%에 이르고 있으나 중국은 대부분 40%를 넘지 않고 있음.
- 둘째, 보험대리인(보험설계사)의 낮은 사회적 지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중국에서도 보험대리인은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는 직업군에 속함.
 -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현저하게 낮아 보험모집 활동에 대해 상당수 기업체에서는 '보험회사 영업사원 사절'이라는 표지를 사무실 앞에 부착해 놓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임.
- 셋째, '보험대리인(보험설계사)'이라는 직업인으로서 그에 적합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중국의 보험대리인(개인)이 소지하는 '보험대리인 자격증' 만으로는 전문 직업인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또한 보험회사 명의로 모집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일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교육은 매우 짧은 기간동안 시행되며, 교육내용이 단순하고, 주로 보험판매 스킬을 전달하는데 집중돼 있어 그다지 체계적이지 못한 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상해금융보, 12/18)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6년말	07.12.21(금)	07.12.28(금)	08.1.4(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4.92	5.81	5.74	5.83	+0.09
	美 10년국채	4.71	4.17	4.08	3.87	-0.21
	英 10년국채	4.73	4.64	4.56	4.41	-0.15
	日 10년국채	1.68	1.56	1.51	1.48	-0.03
주가	韓 KOSPI	1,434.46	1,878.32	1,897.13	1,863.90	-1.75%
	韓 KOSDAQ	606.15	697.46	704.23	719.25	+2.13%
	美 DJIA	12,463.15	13,450.65	13,365.87	12,800.18	-4.23%
	美 Nasdaq	2,415.29	2,691.99	2,674.46	2,504.65	-6.35%
	英 FTSE	6,240.90	6,434.10	6,476.90	6,348.50	-1.98%
	獨 DAX	6,596.92	8,002.67	8,067.32	7,808.69	-3.21%
	佛 CAC40	5,541.76	5,602.77	5,627.25	5,446.79	-3.21%
	日 Nikkei225	17,225.83	15,257.00	15,307.78	14,691.41	-4.03%
	中 상해종합	2,675.47	5,101.78	5,261.56	5,362.91	+1.93%
	대만 가권	7,823.72	7,941.44	8,396.95	8,221.10	-2.09%
홍콩항셍	19,964.72	27,626.92	27,370.60	27,519.69	+0.54%	
환율	원/달러	929.60	941.20	938.90	938.90	-
	원/100엔	781.83	831.49	825.04	856.86	+31.82
	엔/달러	118.90	113.20	113.80	109.57	-4.23
	달러/유로	1.3148	1.4323	1.4613	1.4742	+0.0129
	위안/달러	7.8135	7.3690	7.3179	7.2729	-0.0450